

월요광장



이봉수
광주도시공사 도시주택연구소장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
드라인 기준이 변경되었다. 새 정부의 추진 방향은 쇠퇴
지역에 경제 거점을 조성해 도시 공간의 혁신을 도모하고,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 참여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선도 등 크게 세 가지
기본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성과 중심으로 사업
체계가 개편되었는데, 기본 방향은 기존의 다섯 가지 사업
유형을 경제 재생과 지역 특화 재생의 두 가지 유형으로
통합하였다.

경제 재생은 쇠퇴한 도시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거점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특화 재생은 골목상권 활성화,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 특성을 살리는 사업을 신설했고, 중소도시
를 중심으로 지역별 고위 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재정·특례 지원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
하고, 다양한 정비 사업과 연계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 전문성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
추진 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광주 도시재생사업의 방향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계속 지원하되 매년 추진 실적을
평가해 부진 사업은 지원 규모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지원 우선순위가 보존보다는
사업성에 방점이 찍힌 듯하다.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도시재생사업에 우선 투자한다
는 뜻이다.

2013년 6월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종합
적인 기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특별법의 제정은 전국적인 관심
을 모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당 수준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사업의 추진을 제약하는 제도적 한계와
재원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을
국정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은 큰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기존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공모방식의 변경과 사업성이
라는 과제를 제시한 듯하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빠른 시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물론 기반시설이나 대규모 거점 시설과 같은 물리적
환경의 변화는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지만, 상권 회복이나
역량 강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표는 더디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재생사업은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과정을 통해 꾸준히 평가하고,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하다.

요하다.

미국의 시카고 밀레니엄파크 프로젝트나 일본 도쿄의
마루노우치 지구 재생 사업처럼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의
도시재생 사례를 우리나라에서는 선뜻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의 도시재생 사업은 현재 시행착오를 반복 중인 것 같다.

우리나라 특히 광주의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 필자의 경험으로는 커뮤니티 복원을
중요시하는 재생 사업에 대한 관심이 참여형 도시재생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중요하지만 광주만의 도시재생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영국에서 시작된 어반 릴리지나 현재 트렌드가 되고 있는
사회 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도입에 대한 고민도
광주만의 도시재생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새로운, 보다 나은 미래 광주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를 위해 광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나 재생의 첨병인 활동가와
같은 인적 자산 및 역사 문화의 물적 자산을 활용하고 지역이나
마을의 특징과 가치를 최대한 반영해서 유의미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지역사회가 힘을 합치면 도시재생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그 지역 경제를 살리는 사례가 우리 광주에서
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관이 협력해서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드는 성공 사례가 곧 광주에서
창출되기를 바란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수필가

세밀이다. 출다. 한 장 남은 잎. 한 장뿐인 달력처럼
내 마음도 덩달아 스산하다. 바람도 추위를 피해 남녘으로
발길을 재촉하고, 처마 밑 바람도 자꾸 방안을 기웃거리느라
문풍지를 두드린다.

퇴근길에 뒷골목 막걸리집에 들른다. 이 집을 지나
치지 못하는 건 막걸리보다 가끔 드나드는 이조차 따뜻한
하계 맞이하는 주인집 마음 때문이다. 내 허기를 채우는
것은 막걸리가 아닌 정이 분명하다. 정에 취해 터벅 터벅
걸어 돌아온다. 사위는 깜깜하다. 싸락싸락 늦은 밤,
싸락는 내리는 나무전거리에 손수레가 지나간다. 누군가
노인에게 다가가더니 말을 건다. 중년 여인은 노인의 손을
꼭잡고 있다. 고개를 두 번 숙이더니 종종 되돌아가고,
할머니 손에 이만 원이 쥐어져 있다.

“고맙제라, 운털한테는 이백만 원보담도 더 가치 있는
돈이제라.”

헬퍼스 하이

할머니는 내일 병원에 가는 데 쓰겠다며 아픈 다리를
내보이며 골목으로 접어드는 딸 같은 여인을 향해 고개를
굽게 숙인다. 그 다리 위로 숙인 등 위로 8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오늘의 눈발이 떨어진다. 노인의 폐지 더미를
무연히 바라본다. 할머니에게 너무 높아 줄을 제대로
뮤지 못했다 보다. 폐지 몇 묶음이 휘청인다.

노인 손수레에서 툭 떨어진 신문 한 장, 가만히 주워
펼친다. “해마다 이름 없는 기부 천사. 올해도 주인공
터 앞에 쌀과 현금, 이웃을 위해 써 달라는 쪽지 한 장”
고개를 들어 보니 노인이 보이지 않고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고 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밥 못 먹고 사는 시대는 아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삶이
박찬 이들이 적지 않다. 그도 최선을 다해 살았을 게다.
시대 운도 있고 대물림도 있다. 바둥거리고 안되는 게
얼마나 많던가. 그런데도 열심히 사는 이들에게 슬며시
내미는 손길은 다습고 또 따스하다.

어쩔 그도 넉넉하지 않을 게다. 대체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가 아끼고 또 아껴서 돕는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흔쾌히 내놓을 수 있는 저 배낭 저 용기.

베를거나 준다든 말도 주재 넘는다. 그냥 슬며시 전
해 주며 사는 삶이 바로 부처나 예수의 삶이 아닐까.
어렸을 적 우린 자주 이웃집과 나눴다. 일도 나눴고

밥도 나눠 먹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을 가시면 으레
우리 형제는 둘둘 나눠서 그 집에서 점심과 저녁을
먹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같은 찬에 같은 밥을
먹었다. 모두 먹고살기 바빴던 그 가난한 시대를 잊지
못한 것은 그 강렬한 가난이 아니라 그 가난 속에서도
나는 따뜻한 인간적 나눔 때문일 게다.

아쉽게 요즘은 나누는 일이 별로 없다. 가족조차 뿔뿔이
나뉘어 살다 보니 삶도 생각도 나뉘졌다. 그러다 보니 더
나눔이 요긴해졌다. 그 나눔을 매우는 것도 또한
나눔이지 싶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헬퍼스 하이(영어: Helper's High)란 말 그대로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사람들의 행복이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지는
현상을 뜻하는 정신의학적 용어이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사람인(人)처럼 서로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고
살아가야 하는지 모른다. 그러니 결국 누군가를 돕는
일은 나를 스스로 돕는 일이 되나 보다.

높은 곳으로 오를수록 모든 것이 잘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다.
그들 마음을 헤아리기가 더욱 어렵다. 낮은 곳일수록
잘 보이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사람들이다.

출다. 이태원도 이곳 광주도. 이 추위로 나눠 가지면
어쩌면 서로의 마음 행복지수는 높이 올라가지 않을
까.

기고



조오복
동화작가

얼마 전 가을의 끝자락, 도서관에 가는 길이었다. 시내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데, 길바닥에 노란 은행잎들이
수북이 떨어져 있었다. 문득 단짝 친구 동자가 생각났다.
옆에 있다면 함께 별떡 누워 뒹굴면서 은행잎 싸움이라도
했을 텐데... 혼자라도 그냥 거기 주저앉아서 은행잎
흔들리며 놀고 싶은 걸 꼭 잡았다. 노란 웅덩이처럼
갈린 은행잎들을 두발로 씹씩 밀면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흥얼거리며 걸었다. 옆길에서 나온 아주머니
한테 “은행잎이 너무 예쁘지요?” 물었더니 “아이고,
귀찮아서 쓰것소?” 냉정하게 대답하고 떨어졌다.

다 익은 은행 열매는 길바닥에 떨어져서 자동차 바퀴에
깔리고, 사람들이 밟으면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 환경공무원
아저씨들은 떨어져 쌓인 은행잎 치우느라 수고거 이만저만
아니다. 그렇지만 일 년도 아니고, 넉넉잡고 한 달 정도
우리가 참으면 안 될까? 지구의 주인이 우리 인간만이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모든 식물, 동물, 광물도 함께
살아야 할 지구의 주인이잖은가? 만물

은행나무가 주는 즐거움

의 영장이라고 사람들이 편할 대로 개발과 파괴를 마구
잡이로 한 결과 환경이 무참히 바뀌어 버렸다. 지금도
곳곳에서 한창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질병도 나타난 거라고 생각한
다. 기후도 점점 온난화로 변하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곳에 사는 펭귄과
북극곰도 개체수가 썰 수 없이 줄었다고 한다. 지금
당장 탄소중립을 철저히 실현해야 하는 시급한 때이기도
하다. 냄새 좀 난다고, 낙엽이 귀찮다고, 어떤 곳의
은행나무는 베어 버리기도 한다니 너무 심하지 않나
싶다. 이른 봄이면 무지막지한 가지치기의 아픔도 잘
견디어 내고, 곳곳이 잘 사는 은행나무를 보면 삶의
강인한 생명력을 본받고 싶을 때도 있다.

셋노란 낙엽이 우리에게 주는 눈부신 황홀함은 악취를
퐁겨서 미안함에 대한 보상이 아닐까 생각도 해본다.
또한 열매와 익은 사람들의 건강에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가로수로서 수많은 자동차의 매연과 먼지, 소음까지
다 받아먹으면서 한 여름 아스팔트의 열기도 식혀
주는 고마운 은행나무를 너무 푸대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은행나무는 암수 나무가 마주보고 눈빛으로 사랑을
주고받아서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 은행나무들만
의묘한 생리 질서를 사람들이 잠깐 불편하다는 이유로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열매를 못 맺게
수은행나무만 골라서 가로수로 심을 거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사람들이 부리는 이기적 욕심의 끝

은 어디쯤일까?

며칠 전 친구들과 모이는 날이었다. 점심을 먹고
차집으로 가면서 금남로를 걸었다. 은행나무 가로수가
눈에 가득 들어 왔다. 그중 몇몇 은행나무에 떨어지는
은행 열매를 받기 위해 동그런 그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물 밑 부분은 은행나무 몸통에 단단히
묶여있고, 떨어질 열매가 마치 바다에서 고기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담겨 있는 것이다. 은행 열매 냄새가
한창 연륜에 오르내릴 때, 어느 지방 도심 가로수에
설치해 놓은 사진을 봤는데, 바로 그것이었다.

가로수 담당하는 분들이 수고스럽겠지만 그물을
설치해 놓고, 열매가 떨어져 모아졌을 때 수거해서
처리하면 냄새 따윈 말끔히 해결될 것이다. 열매가
자동차 바퀴나 사람들의 발길에 밟히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설치된 그물이 반가워서 친구들과한테 “저것,
잘 잘해 봤다” 큰 소리로 말했다니, 지나가던 아저씨도
그물을 쳐다보며 나와 같은 생각인지 고개를 끄덕
끄덕했다.

반듯반듯한 건물들만 보이는 도로변에 은행나무를
암수 가리지 말고 함께 심어서 가을이면 땡땡글글
잘 영근 은행 열매를 오며 가며 쳐다보는 것도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일 것이다. 그게 나만의 고리타분한
바람 일런지 모르겠다. 부디, 냄새 좀 나고, 낙엽
치러가 귀찮다고 은행나무들을 흠아비와 흠아미로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은행나무도 암수 나무가
서로 바라보며 열매 맺을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社說

활주로 연장,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전기로

전남도와 무안군의 숙원이었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무안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은 최근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를 완료했다.
주요 내용은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와 피서리 일대 6만
8378㎡를 공항 부지로 추가 편입하는 것이다. 현재
2800m인 활주로를 3160m로 늘리는 공사에는 492억
원이 투입되며, 30개월이 소요된다. 활주로는 함께
유도로·착륙대도 360m씩 늘어난다.

그동안 무안공항 활주로는 길이가 짧아 소형 항공기밖에
취항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운항 노선이 아시아
권역으로 제한되는 데다 화물 운송도 사실상 어려워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아시아를 벗어나 해외여행을 떠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인천 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전남도와 무안군,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들이 공항이 문을 연

지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활주로 연장 장을
건의해 온 까닭이다.

오는 2025년 활주로는 연장 공사가 완료되면
대형 항공기 취항으로 해외 중장거리 노선이
다각화되면서 지역민 수요는 물론 인근 타 지역의
항공 수요까지 유인할 수 있게 된다. 또 항공 화물
운송 활성화로 화가 기대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공사도 같은 해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활주로 연장도 고속철 개통은 개항 15년
이 지나도록 적자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무안공항 활성화의 전기가 될 수 있다.
내년에는 공항 인근에 항공기 정비·물류·부품·가내식
등을 담당하는 항공특화 산업단지도 문을
열 예정이다. 전남도와 무안군은 이러한
호재들을 살려 무안공항이 명실공히 국토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교통사고·화재 취약...대책 강화

광주와 전남이 전국에서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꼽혔다. 전남은 화재
안전도도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등
전반적인 안전 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행정안전부는 9일 ‘2022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를 발표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통계청
이 발표한 ‘2021년 전국 시도와 시군구
의 안전 수준을 여섯 개 분야로 나눠
계량화한 것이다. 1등급이 가장 안전하고
5등급에 가까울수록 취약하다는 의미다.

분석 결과 광주와 전남은 교통사고
분야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해
전국 여덟 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
분야 안전 등급은 모두 3등급에
머물렀고, 감염병에서만 2등급을
받았다. 전남은 교통사고와 화재
두 개 분야에서 5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생활안전·감염병
분야는 4등급을 기록했고, 자살
분야는 3등급에 그쳤다. 다만 범죄
분야에서는 지난

해보다 한 등급 상승한 2등급을
기록했다.

문제는 지역의 안전지수가 매년 하위권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은 특히 교통사고 분야에서
지난 2016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하기 시작한 이후 매년
5등급에 머물고 있고, 광주는
일시적으로 개선됐다가 다시
하위권으로 내려앉는 추세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도가 교통사고 예방 등
각종 대책을 마련, 집중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는 데도
지수는 호전되지 않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는 지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있다.
지역사회의 안전이 취약한
것은 기반 시설 미비와
주민들의 안전 의식
부족에서 비롯된다.
광주·전남 지자체들은
분야별 안전지수를
면밀하게 분석해
교통·소방 등 취약
분야의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운천사(雲泉寺)는 광주시 서구 금호운천길
백석산(白石山) 동쪽 끝 산자락에
있다. 대웅전에 마애여래좌상(磨崖如來坐像,
광주시 유형문화재 4호)이 모셔져
있다. 불상은 키가 361cm에
달하며 가로 6.3m, 세로 4.4m
규모 화강암에 새겨져 있다.

운천사 불상은 문화재 안내판에 ‘고려
시대 조성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적혀 있다. 고려시대
바위 불상 대부분이
그렇듯이 마애여래좌상으로
불린다. 바위에 새

불이 아래에서
설법한다는 나무)가
아니라 약함(藥室, 약그릇)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용화와 연관된
꽃잎 장식이
그릇 밑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특징도
고려됐다.
백석산 동편
바위에 새겨진
불상 위치도
8세기
이래 굳어져
온
약사여래불의
전형적인
방위
양식이다.
부처상의
깃불이
어깨에
닿을
정도로
크고
도톰한
입술 등의
특징으로
미루
고려
시기의
11-12세기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됐다.

운천사 마애불

이렇게도
현재
운천사
창건
연혁을
밝힐
수
없었던
부처라는
문헌
자료는
없고
현판
세 개를
판독한
결과
절이름
은
정토사(1932년),
극락암(1938년),
운천사(1970년대),
정토·백석사(1980년대),
극락암(1990년대)
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순천대
문화유산연구소가
주관한
운천사
마애여래좌상
학술대회에서
이
불상의
성격이
규명됐다.
최인선
순천대
미술사학
교수는
‘운천사
마애여래좌상의
미술사적
가치’라는
논문에서
“운천사
마애여래좌상은
약사여래불(藥師如來佛)”이라고
밝혔다.
약사여래불은
중생의
고통과
병을
치유하는
부처다.
판단
근거는
양손으로
감싸
전
물건이
용화(龍華,
미륵

아쉽게도
현재
운천사
창건
연혁을
밝힐
수
없었던
부처라는
문헌
자료는
없고
현판
세 개를
판독한
결과
절이름
은
정토사(1932년),
극락암(1938년),
운천사(1970년대),
정토·백석사(1980년대),
극락암(1990년대)
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불교
태고종
측은
이번
학술대회
를
계기로
불상을
보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한다.
광주
5개
구
가운데
서구는
유일하게
보물이나
국보가
없는
자치구다.
운천사
불상이
보물로
지정돼
서구의
역사에
깊이를
더하고
운천사와
고려
불상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윤영기 체육부 부국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정 치 부 220-065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대 표 전 화 222-8111 / 220-0551
문 화 부 220-0661
문 화 부 220-0652
예 항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